

Curriculum Vitae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진 세로카는 북미 최대 컨테이너 항인 LA항만청장이다. 세로카 청장이 2014년 6월 LA 시의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 이래, LA항은 거듭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수의 최고 월간, 분기 화물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2021년 6월 서반구 최초로 연간 1,000만 TEU 처리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21년 5월 100만 TEU를 처리하는 이정표도 달성했다. 세로카 청장은 전 세계 항만 고객, 산업 파트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선출 및 임명직 공무원, 재계 리더, 지역 사회 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존경 받는 국제 무역 전문가로서 미국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에 혜택을 주는 규칙 기반 무역협정을 적극 옹호해왔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해운, 글로벌 물류, 경영 분야 전반에서 인정받았으며 2024년에는 LA Times 선정 “L.A. Influential” 시리즈에 이름을 올리며 LA의 대표적 지도자로 주목받았다. 2023년에는 세계 무역 산업에 대한 기여와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인 LA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LA 상공회의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스탠리 T. 올라프슨 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아시아계 미국인 건축·엔지니어 협회장상도 수상했다.

2021년에는 해운업계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컨테이너화·복합운송연구소의 코니 상을 수상했고 공급망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 받아 Lloyd's List 선정 세계 해운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인랜드 엠파이어 경제협의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며 수십 년간의 공급망·물류·해운 분야 리더십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팬데믹 기간에 보여준 리더십을 인정 받아 Supply Chain Dive 선정 올해의 경영자로 뽑혔고 2016년부터 매년 LA Business Journal이 발표하는 LA500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최대 항만의 수장으로 2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교역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끌고 있다. 세로카 청장 취임 이후 LA항은 화물 흐름의 신뢰성·예측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세로카 청장은 항만 분야 최초의 디지털 정보 포털인 Port Optimizer™ 구축을 총괄했으며 전 세계 항만들이 공급망 데이터와 분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 내 무배출 화물 장비와 대형 화물 트럭을 도입하는 원대한 목표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싱가포르·베트남과 국제 그린·디지털 해운 회랑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세로카 청장의 리더십 하에 LA항은 2015년 공공 접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익형 수변 인프라 조성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 또한 West Harbor와의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LA 워터프론트를 따라 대규모 리테일·식당가를 조성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 수많은 지역사회 친화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청장 임기 중에 무역대표부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 상무부 공급망 경쟁력 자문위원회, 해사청 해상운송시스템 국가자문위원회, 연방해사위원회 공급망 혁신팀, 교통부 산하 항만 성과 통계 작업반 등 다섯 개의 미 연방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화물 이동과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정책을 자문했다.

또한 해운물류산업 내 인재 양성과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LA항과 롱비치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해운물류교육 캠퍼스(Goods Movement Training Campus)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동 캠퍼스는 해운물류 인력의 유치·채용·유지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항만협회 북미지역 부회장, 알라메다 회랑 교통청 이사회 이사, LA 상공회의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USC 글로벌 공급망 연구소 경영위원회 의장, 노스웨스턴대학교 교통센터 경영자문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1988년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APL) 신시내티 사무소 영업지원 업무를 시작으로 해운업계에 투신했으며 이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주요 지점을 거쳐 2010년 미국으로 복귀해 APL 미주 지역 사장으로 1,000명의 직원을 이끌며 상업·터미널·내륙운송·노무관리 등 정기선 사업을 총괄했다.

University of New Orleans에서 마케팅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